

호스피스팀간의 사랑과 믿음의 고리를

김민정

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제1부회장

회

원 여러분!

많은 기대를 가지고 맞이했던 2000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새천년이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호스피스는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지난해 우리는 제 2의 IMF위기와 의료계의 '의약 분업'이라는 진통속에서 너무나 힘든시간을 보냈고 따라서 호스피스의 '의료보험 등제'라는 숙제는 뒤로 미루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.

또 몇몇 속에서 호스피스라는 이름을 걸고 말기암 환자를 돌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개원한 시설들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미비한 상태로 그 내용이 격정되는 점이 있었습니다.

또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네트워크이 결성되어 일본, 홍콩, 싱가포르, 호주, 대만 등을 위시하여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호스피스 발전을 도모하고자 모였습니다.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석하여 호스피스 전파에 한 몫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이런 외부적인 상황에서 호스피스의 진정한 발전은 어디에서 올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.

지난 10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네트워크 준비 모임에 참석해서 또, 그후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기관을 둘러본 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호스피스의 진정한 발전은 호스피스팀간의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.

어느 시설에서 환자들의 표정이 평화로워서 담



당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였는지 여쭙어 보았더니 “나는 내과의나 가정의도 아니고 호스피스 전문의사는 더욱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을 존중합니다. 그들은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고 경

험이 오래되고 풍부한 분들입니다. 어떻게 내가 그 분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” 그는 권위적인 의사가 아니었고 행복한 의사였습니다. 호스피스 팀의 구성원이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대방의 임무를 존중할때 호스피스는 발전되고 전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.

이제 가톨릭 교구에서도 각 성당에서 호스피스팀을 만들어 말기암 환자의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

회원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잘 살펴 보시고 용기를 가지고 팀의 결성에 적극 참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호스피스가 활발히 이루어져 말기암 환자들이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자원봉사자는 삶의 마지막 과정에 동참하는 소중한 경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원목은 영혼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그 고유의 역할에 쉽게 접근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의료진도 보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할 수 있어 행복한 의사, 간호사가 되며 사회사업가는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총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아무쪼록 이런일을 하심에 있어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